

러시아, 해외치적 방지위해 제2선적제도 도입

선적제도 도입시 러시아 국적선대 증가예상

러시아 정부는 급증하는 국내 주요선사의 해외 편의치적을 방지하고 기존 해외치적선의 국내등록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2선적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외개방 이후 12년간 러시아 선주에 의해 건조된 외항선박 211척의 90% 이상이 라이베리아, 파나마, 몰타 등 편의치적국에 등록되었다.

러시아 보유선대의 해외치적이 이같이 급증한 것은 과도한 규제와 기존 국내 선적제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국적등록 자체가 기피되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2선적제도가 도입될 경우 러시아 국적선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약 15만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제2선적제도 법안은 이미 하원인 'DUMA'에서 의원 450명중 413명이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으며, 연말까지는 2차 및 3차의 청문회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제2선적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러시아 최대의 해운기업 'Sovcomflot' 사도 북극해 운항이 가능한 특수선박을 중심으로 해외치적선의 제2선적 등록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요항만의 컨테이너 취급물량 크게 증가

올 1-7월 4,078만TEU로 전년동기비 24% 늘어

중국 주요항만의 컨테이너 취급물량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중국 주요항만의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르면, 금년 1-7월중 상해를 비롯하여 심천, 청도, 영파, 천진 등 주요 10개 항만의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4,078만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2%가 증가했다.

이 기간중 각항만별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을 보면, △상해항이 1,015만TEU로 전년동기대비 26.3% 증가했으며, 이어 △심천항은 881만TEU로 22.5% △청도항은 357만TEU로 24.4% △영

파항 277만TEU로 28.2% △천진항 269만TEU로 24.3% 증가했다.

또한, △광주항은 238만TEU로 43.3% △대련항 151만TEU로 23.8% △하문항 130만TEU로 15.1% △중산항 57만TEU로 23.8% △연운항 44만TEU로 24.2%가 각각 증가하는 등 모든 항만에서의 처리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7월 한달간 중국 주요항만의 화물취급량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한 1억1,142만톤으로 이중 연안항이 22% 증가한 1억354만톤, 하천항이 14% 증가한 788만톤을 기록했다.